

# 한국전통음악의 음악적 요소가 정서반응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Musical Elements in Korean Traditional Music on Affective Responses

장인중

전주대학교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소

In-Jong Jang(bolshevism@hanmail.net)

###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음악의 음악적 요소들이 각각 어떠한 정서를 유발하는가를 기분반응검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장단조건법, 템포, 음색, 수직텍스처의 두께와 수평텍스처의 밀도는 특정한 정서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평조와 계면조로 구분되는 전통 선법은 정서반응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통적인 국악보다는 현대에 창작된 국악이 일정한 정서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음악과 마찬가지로 한국 전통음악 역시 음악적 요소에 따라 감정 반응을 유발해내며 이러한 특성은 배경음악, 광고음악, 음악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한국전통음악 | 정서 | 정서반응 |

### Abstract

This essay researches which affective responses can be made from musical element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rough adjective description about mood responses. It results that traditional mode which are classified into Pyoungjo and Gyemounjo hardly have any the affective responses, while major and minor mode, tempo, tone color, vertical and horizontal texture have some effects on particular affects. Meanwhile, newly composed Korean traditional music have more effects for as inducing affective responses rather than works as old Korean traditional music. As well as Western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induces different affective responses to each musical element. As such, this aspects can be adopted to different realms like background music, commercial music, music therapy and so on.

■ keyword : | Korean Traditional Music | Emotion | Affective Reponses |

## I. 서론

음악은 감상자에게 다양하고 의미있는 정서 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어떤 음악이 어떠한 정서를 유발하는가 하는 문제는 플라톤 시대 이래 줄곧 논의된 주제였다. 20세기 초반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 경험과학적 방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수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 연구 중 상당수는 음악 요소의 차이에 따라 각각 정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테면 장조는 '행복', 단조는 '슬픔', 협화음은 '우아함', 불협화음은 '흥분', 높은 음은 '익살', 낮은 음은 '위엄'의 정서와 각각 관련이 깊은 반면[1][2], 음색 차이는 정서에

\* 본 연구는 문화관광부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육성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90304-006

접수일자 : 2009년 03월 04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3월 24일

교신저자 : 장인중, e-mail : bolshevism@hanmail.net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3], 느린 템포의 음악은 빠른 템포의 음악이나 음악이 없는 환경에서보다 집중력 향상에 유리하다는 [4] 의견 등이 이러한 연구들에서 도출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음악의 정서 유발 효과는 음악 산업과 공공분야 및 일상의 영역에서 더욱 기능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방송, 영화, 광고, 웹사이트 등의 배경음악, 건물 안이나 거리에서 재생되는 음악, 심리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음악은 각각의 목적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서를 일으킬 수 있도록 치밀한 검토과정과 연구를 통해 제작된다.

음악과 정서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간간히 수행되어 오고 있다[5][6]. 그러나 국내의 연구들도 주로 서양음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한국전통음악의 정서 반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서양음악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부터 한국전통음악의 정서 반응을 유추해볼 수도 있으나 두 음악은 그것을 구성하는 원리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한국전통음악이 단지 공연예술 뿐만 아니라 아닌 다양한 기능을 지닌 문화콘텐츠로서 활용되기 되기 위해서는 전통음악을 대상으로 한 정서 반응연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한국전통음악이 음악적 요소에 따라 각각 어떠한 차이를 갖는 정서반응을 유발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우선 한국전통음악의 선법, 템포, 악기, 수직텍스처의 두께, 수평텍스처의 밀집도 및 음악의 장르에 따라 어떠한 정서 반응이 나타나는지 응답조사와 분석 결과를 통해 논의해 볼 것이다.

## II. 조사방법 및 절차

음악의 정서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통상 생리적 반응검사, 기분 반응 검사, 행동관찰 조사 등이 있다.

[7] 여기서는 의미 미분 (Semantic Differential) 기술을 통한 기분 반응 검사를 통하여 한국전통음악의 정서반응을 알아 보고자 했으며, 다음과 같은 한국전통음악 100개를 청취자들에게 들려주고 응답을 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표 1. 측정 대상 음악

음악	제목
M1	가야금산조 진양조 (최옥삼류)
M2	청성곡
M3	〈나무가 있는 언덕〉
M4	해금산조 자진모리 (지역희류)
M5	피리산조 중모리-중중모리 (정재국류)
M6	수룡음
M7	현악영산회상 중 타령
M8	김경아, 〈Piri〉
M9	풍경이 있는 소리, 어라연 - 동굴
M10	피리산조 자진모리 (정재국류)
M11	대취타
M12	황병기, 〈춘설〉 - 평화롭게
M13	가야금산조 자진모리 (최옥삼류)
M14	해금산조 중모리-중중모리 (지역희류)
M15	평조회상 중 타령
M16	이건용, 〈저녁노래 III〉
M17	가곡中 언락
M18	통소연주 -연풍대
M19	피리산조 진양조 (정재국류)
M20	슬기등, 〈여행〉
M21	나비, 〈면훅날〉
M22	김백찬, 〈Track1〉
M23	가야금산조 중모리-중중모리 (최옥삼류)
M24	관악영산회상 중 타령
M25	해금산조 진양조 (지역희류)
M26	김영동, 〈산행〉
M27	취타
M28	거문고독주곡 舞 중모리-중중모리
M29	강은일, 〈초수대엽〉
M30	18현과 25현을 위한 '아리랑'
M31	길군악
M32	황병기, 〈숲〉 - 녹음
M33	거문고산조 자진모리 (신패동류)
M34	백대웅, 〈안바루의 4계절 노래〉
M35	수제천
M36	문묘제례악 중 황중궁
M37	김영동, 〈아침의 소리〉
M38	꽃별, 〈꽃〉
M39	대금산조 중모리 (서용석류)
M40	보허자
M41	생소병주 염양춘
M42	아쟁산조 자진모리
M43	계면가락도드리
M44	대금산조 진양조 (서용석류)
M45	비발디의 사계 중 '봄' 1악장
M46	짐노페디 no.1

M47	거문고산조 중모리-중중모리 (신쾌동류)
M48	시나위 굿거리
M49	아쟁산조 진양조
M50	불림소리 라
M51	거문고산조 진양조 (신쾌동류)
M52	김영동, 〈그리움〉
M53	유황곡
M54	이현의 농, 〈하늘빛 그리움〉
M55	월일, 〈어디만치 왔니?〉
M56	우조가락도드리
M57	대금산조 자진모리 (서용석류)
M58	시나위 자진모리
M59	정수년, 〈여행길〉
M60	양청도드리
M61	아쟁산조 중모리-중중모리
M62	김나래, 〈동화〉
M63	황병기, 〈술〉 - 비
M64	비발디의 사계 중 '봄' 2악장
M65	강효선, 〈In The Wind〉
M66	가곡中 소용이
M67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M68	김영동, 무소유
M69	해금독주 〈창부타령〉
M70	관악영산회상 중 세령산
M71	김기범, 〈그 기억 속으로의 여행〉
M72	여민락 1장
M73	박승률, 〈소리푸리〉
M74	김수철, 〈나그네〉
M75	한갑득, 〈하현해탄〉
M76	현악영산회상 중 상영산
M77	〈두 대의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메나리〉
M78	관악영산회상 중 군악
M79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M80	여민락 령
M81	신 관동별곡
M82	신동일, 〈대금과 마림바를 위한 雨〉
M83	박한규, 〈징검다리〉
M84	한오백년
M85	여민락 4장
M86	정대석, 〈수리재 중 정경〉
M87	관악영산회상 중 상영산 - 중영산
M88	현악영산회상 중 하현도드리
M89	조문영, 〈여우비 오던 날〉
M90	풍경이 있는 소리, 〈길〉 - 평안
M91	김영동, 〈파〉문
M92	해금독주 〈육자백이〉
M93	양방언, 〈Flowers of K〉
M94	강은일, 〈낮은 마루바닥〉
M95	류형선, 〈대금 해금 가야금을 위한 두 개의 "자장가"〉
M96	여민락 만
M97	현악영산회상 중 군악
M98	사계, 〈OBLIVION〉
M99	그림, 〈산책〉
M100	놀이터, 〈선물〉

측정에 사용된 음악은 각각의 음악적 요소가 잘 드러나는 부분들로 편집되었고 근대 이전의 한국전통음악과 창작국악 및 서양음악 요소가 가미된 퓨전국악이 포함되었다.

조사는 2008년 1월과 2월에 모두 세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청취응답자는 한국전통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14~65세의 일반인 남녀이며, 1차 측정에는 38명의 청취자가 30개의 음악에 답하였고, 2차 측정에는 33명의 청취자가 35개의 음악에, 3차 측정에는 32명의 청취자가 35개의 음악에 각각 응답하였다.

측정 절차는 청취응답자에게 측정 음악을 각각 1분간 2회 반복하여 들려주고 응답자들은 각 음악에 느낀 형용사 의미의 정도를 [표 2]와 같은 7점 척도 문항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 사용된 문항은 Kate Hevner의 분류법을 활용하여 구성된 것이다. Hevner는 음악의 정서를 묘사하는 형용사들을 대립과 인접의 관계를 갖는 8개 그룹의 서클로 구분했는데[1], 여기서는 이 Hevner 서클의 각 그룹을 대표하면서 한국전통음악을 묘사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쓰이는 형용사 네 쌍을 취하여 다음과 같이 어의차 척도 측정 문항의 양극단에 배치하였다.

표 2. 측정 문항

	-3	-2	-1	0	1	2	3	
슬픈	□	□	□	□	□	□	□	흥겨운
진지한	□	□	□	□	□	□	□	재미있는
고요한	□	□	□	□	□	□	□	힘있는
명상적인	□	□	□	□	□	□	□	들떠있는

분석단계에서는 응답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각 음악에 대한 SD특점 평균을 구한 후 음악 요소 별로 정서를 묘사하는 형용사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통계적 방법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 12.0을 사용하였고, 선법, 장르, 악기와 정서와의 관계는 평균비교 T검정을, 템포, 수직텍스처의 두께, 수평텍스처의 밀집도 같이 연속적 자료인 경우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분석

#### 1. SD특점 평균값

측정결과 각 음악에 대해 응답자들이 표기한 SD특점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SD특점 평균값

음악	슬프 -흥겨운	진지한 -재미있는	고요한 -힘있는	명상적인 -들떠있는
M1	-1.135	-1.632	-1.026	-1.447
M2	-1.974	-1.974	0.289	-0.684
M3	-0.684	-1.132	-1.053	-1.079
M4	1.737	1.737	1.579	1.711
M5	-0.263	-0.289	0.632	0.316
M6	0.158	-1.108	0.395	-0.026
M7	0.816	0.342	1.079	0.816
M8	-0.658	-1.132	-0.189	-0.237
M9	-0.868	-1.289	-2.289	-2.026
M10	1.605	1.421	1.289	1.395
M11	0.395	0.054	1.658	1.079
M12	0.947	0.595	-0.105	0.237
M13	1.947	1.579	1.421	1.763
M14	-1.263	-1.237	0.789	0.342
M15	1.289	-0.289	2.081	1.605
M16	-1.184	-1.237	-1.526	-1.316
M17	0.053	-0.868	0.553	0.316
M18	-0.447	-1.026	0.605	0.342
M19	-1.421	-1.684	-0.553	-0.711
M20	2.132	2.079	0.895	2.105
M21	-1.211	-1.553	-1.000	-0.789
M22	-1.000	-1.289	-1.053	-0.921
M23	0.184	-0.368	-0.132	-0.405
M24	1.000	-0.237	1.368	1.184
M25	-0.763	-0.947	0.316	0.026
M26	0.395	0.079	-0.895	-1.026
M27	0.816	0.105	0.816	0.605
M28	-0.053	-0.789	0.026	-0.158
M29	0.132	-0.868	-0.632	-0.553
M30	-0.351	-0.842	-0.132	-0.447
M31	1.091	0.152	1.030	1.091
M32	-0.758	-1.364	-1.250	-1.606
M33	0.394	0.364	0.727	0.273
M34	1.364	1.303	0.818	0.848
M35	-0.394	-1.606	0.424	-0.212
M36	-0.242	0.212	0.364	0.545
M37	-1.333	-1.424	-0.212	-1.000
M38	-0.303	-0.727	-0.303	-0.576
M39	-1.273	-1.455	-0.152	-0.545
M40	0.063	-1.030	0.818	0.061
M41	-0.061	-0.030	0.212	0.515
M42	2.182	1.939	1.970	1.970
M43	1.152	0.394	0.576	0.848
M44	-1.515	-1.667	-1.121	-1.424
M45	2.152	2.061	0.818	1.212

M46	-0.030	-0.242	-1.121	-0.906
M47	0.818	0.121	0.606	0.500
M48	-0.697	-0.970	0.848	0.000
M49	-1.697	-1.788	0.212	-0.625
M50	-1.515	-1.667	-2.242	-2.000
M51	-0.727	-1.424	-0.364	-1.031
M52	-2.000	-1.697	-1.394	-1.394
M53	0.242	-0.515	1.031	0.667
M54	-0.697	-0.758	-1.091	-0.758
M55	1.182	1.424	1.333	1.606
M56	0.818	0.333	0.758	0.818
M57	-0.091	-0.697	0.879	0.000
M58	2.000	1.364	1.576	1.636
M59	2.273	2.152	1.182	1.848
M60	1.485	1.000	0.818	1.303
M61	-0.879	-1.273	1.030	0.091
M62	1.636	1.182	0.273	0.788
M63	1.000	0.818	1.030	1.061
M64	0.121	-0.061	-0.094	-0.303
M65	-1.909	-1.818	-0.303	-0.939
M66	-0.313	-1.094	0.094	-0.063
M67	-0.875	-1.313	-1.094	-1.188
M68	-1.656	-1.719	-0.375	-1.094
M69	0.719	0.781	0.531	0.188
M70	0.344	-0.781	0.969	0.531
M71	-1.813	-1.719	-1.719	-1.719
M72	0.531	-1.000	0.844	0.250
M73	-1.125	-1.406	0.250	-0.781
M74	-2.031	-2.156	-1.625	-1.688
M75	-0.750	-1.125	1.125	0.094
M76	-0.938	-1.625	-0.688	-1.094
M77	0.500	0.438	0.906	1.031
M78	0.813	-0.438	1.563	1.032
M79	-2.032	-2.194	-1.032	-1.452
M80	0.688	-0.594	0.906	0.656
M81	1.156	0.844	0.469	0.875
M82	-0.750	-1.219	-1.219	-1.219
M83	-1.063	-1.375	-0.594	-0.125
M84	-0.688	-1.125	0.563	-0.281
M85	0.563	-0.469	1.406	0.656
M86	-0.313	-1.000	-0.063	-0.531
M87	-0.156	-1.063	0.750	-0.031
M88	-0.313	-0.906	0.281	-0.156
M89	0.500	0.094	-0.250	-0.594
M90	-0.531	-1.063	-1.125	-1.156
M91	-1.469	-2.000	-1.125	-1.375
M92	-0.969	-1.188	-0.188	-0.594
M93	1.938	1.719	1.469	1.500
M94	0.125	-0.406	-0.031	0.000
M95	-0.938	-1.375	-0.656	-0.656
M96	0.063	-1.125	1.469	0.500
M97	1.688	1.219	1.094	1.281
M98	-0.500	-0.938	-0.094	-0.438
M99	-0.313	-0.839	-0.594	-1.063
M100	0.156	-0.406	-0.219	0.094

2. 선법에 따른 정서반응

2.1 측정 대상 음악의 선법

한국전통음악에는 평조, 우조, 5음음계 계면조, 3음음계 계면조, 육자배기토리, 경토리, 서도선법, 메나리토리 등 다양한 선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선법들에 대한 개념과 분류 및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러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중 한국전통음악의 선법이 크게 평조와 계면조로 분류된다는 의견[8]은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질 만하다. 이에 따르면 평조와 계면조의 음계를 나열했을 때 중심음의 윗음(上一)과 아래음(下一)이 두 선법을 특징짓는 음이 되는데,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평조, 우조, 경토리, 서도선법은 모두 평조에 포함되고 계면조, 메나리토리, 육자배기토리 등은 계면조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20세기 들어 새롭게 작곡된 창작국악의 일부와 퓨전국악의 상당수는 전통음악의 선법이 아닌 서양음악의 장단조 선법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측정대상 음악의 선법을 장조, 단조, 평조, 계면조로 구분하고 장조와 단조, 평조와 계면조의 차이가 각각 정서반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 보도록 한다.

표 4. 측정 대상 음악의 선법

음악	선법	음악	선법	음악	선법
M1	계면조	M35	계면조	M69	평조
M2	계면조	M36	선법없음	M70	계면조
M3	장조	M37	평조	M71	단조
M4	계면조	M38	단조	M72	평조
M5	계면조	M39	계면조	M73	계면조
M6	계면조	M40	평조	M74	단조
M7	계면조	M41	계면조	M75	계면조
M8	장조	M42	계면조	M76	계면조
M9	평조	M43	계면조	M77	계면조
M10	계면조	M44	계면조	M78	평조
M11	계면조	M45	장조	M79	단조
M12	계면조	M46	장조	M80	평조
M13	계면조	M47	계면조	M81	단조
M14	계면조	M48	계면조	M82	단조
M15	계면조	M49	계면조	M83	장조
M16	단조	M50	단조	M84	계면조
M17	평조	M51	계면조	M85	평조
M18	계면조	M52	단조	M86	계면조
M19	계면조	M53	평조	M87	계면조
M20	장조	M54	장조	M88	계면조
M21	장조	M55	단조	M89	장조

M22	장조	M56	평조	M90	장조
M23	계면조	M57	계면조	M91	평조
M24	계면조	M58	계면조	M92	계면조
M25	계면조	M59	장조	M93	장조
M26	장조	M60	평조	M94	장조
M27	계면조	M61	계면조	M95	계면조
M28	계면조	M62	장조	M96	평조
M29	장조	M63	평조	M97	평조
M30	평조	M64	단조	M98	단조
M31	평조	M65	단조	M99	장조
M32	평조	M66	평조	M100	단조
M33	계면조	M67	장조		
M34	장조	M68	단조		

2.2 장단조에 따른 정서 반응 측정 결과

장조와 단조를 집단변수로, ‘슬픈-흥겨운’, ‘진지한-재미있는’, ‘고요한-힘있는’, ‘명상적인-들떠있는’의 네 종류 정서를 감정변수로 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5. 장조/단조와 정서 반응의 독립표본 T검정

	선법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슬픈-흥겨운	장조	21	.22462	1.202049	2.7658	.009
	단조	15	-.87187	1.130712		
진지한-재미있는	장조	21	-.12333	1.308514	-2.178	.036
	단조	15	-1.01933	1.071824		
고요한-힘있는	장조	21	-.35981	.959739	1.019	.315
	단조	15	-.68953	.952438		
명상적인-들떠있는	장조	21	-.19619	1.137819	1.565	.127
	단조	15	-.77087	1.007395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슬픈-흥겨운’ 정서의 유의확률은 0.009이므로 유의수준 0.01 하에서 장조 음악은 ‘흥겨운’ 정서와 관계가 있고 단조 음악은 ‘슬픈’ 정서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의수준 0.05 하에는 단조의 음악이 ‘진지한’ 정서에 가깝고 장조의 음악은 ‘재미있는’ 정서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조는 기쁜 느낌을 주고 단조는 슬픈 느낌을 준다는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수행된 몇몇 경험적 연구[1][2]에서 도출된 결과와도 유사하다.

2.3 평조와 계면조에 따른 정서 반응 측정 결과

평조와 계면조를 집단변수로, 네가지 정서영역을 검정변수로 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6. 평조/계면조와 정서반응의 독립표본 T검정

	선법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슬픈 -흥겨운	평조	19	.29437	.860157	1.268	.210
	계면조	44	-.05816	1.070149		
진지한 -재미있는	평조	19	-.44526	.913966	.334	.740
	계면조	44	-.53707	1.037455		
고요한 -힘있는	평조	19	.59084	.790908	.302	.764
	계면조	44	.52725	.757205		
명상적인 -들떠있는	평조	19	.28363	.859297	.474	.637
	계면조	44	.17086	.869997		

표에서 나타난대로 유의확률은 모두  $p>0.05$ 이다. 따라서 평조와 계면조의 차이는 장-단조와는 달리 어떠한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로 일반 청취자들이 한국전통음악의 언어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으므로 그 차이를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겠다. 또한 상당수의 현행 계면조 악곡은 다양하게 변개되어 영산회상 같은 예는 오히려 평조와 비슷한 모습을 될 정도로 계면조적 특성을 잃어버렸는데 [8], 이렇게 한국전통음악의 평조와 계면조의 구분이 장조와 단조에 비해 불분명한 점도 이러한 응답 결과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3. 템포에 따른 정서반응

3.1 측정 대상 음악의 템포

한국전통음악에서 한배(템포)의 변화는 악곡을 구성하는 주요한 원리 중 하나이다. 영산회상의 상영산-중영산-세령산, 가곡의 만대엽-중대엽-삭대엽, 느린 진양에서 빠른 자진모리장단으로 진행되는 산조, 민요의

긴-자진 형식 등은 한배의 운용을 통해 음악을 다채롭고 변화감 있게 이어가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템포는 예로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템포가 특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측정 대상의 음악을 느림-중간-빠름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전통음악의 경우 장단이 템포를 말해 주기도 하므로 진양조는 느림, 중모리/중중모리/굿거리 등은 중간, 자진모리/휘모리/단모리 등으로 연주되는 곡은 빠름으로 분류하였다. 그외 전통음악 장단이 적용되지 않은 창작국악이나 퓨전국악 악곡은 한 박의 시간적 길이를 예 따라 구분하였다. 측정대상음악의 템포는 [표 7]과 같다.

표 7. 측정 대상 음악의 템포

음악	템포	음악	템포	음악	템포
M1	느림	M35	느림	M69	중간
M2	느림	M36	중간	M70	느림
M3	느림	M37	느림	M71	중간
M4	빠름	M38	중간	M72	느림
M5	중간	M39	중간	M73	중간
M6	느림	M40	느림	M74	느림
M7	중간	M41	중간	M75	느림
M8	중간	M42	빠름	M76	느림
M9	느림	M43	중간	M77	중간
M10	빠름	M44	느림	M78	중간
M11	중간	M45	빠름	M79	느림
M12	중간	M46	느림	M80	느림
M13	빠름	M47	중간	M81	중간
M14	중간	M48	중간	M82	느림
M15	느림	M49	느림	M83	느림
M16	느림	M50	느림	M84	중간
M17	느림	M51	느림	M85	중간
M18	중간	M52	느림	M86	중간
M19	느림	M53	느림	M87	느림
M20	빠름	M54	중간	M88	중간
M21	느림	M55	중간	M89	느림
M22	느림	M56	중간	M90	느림
M23	중간	M57	빠름	M91	느림
M24	중간	M58	빠름	M92	느림
M25	느림	M59	빠름	M93	빠름
M26	중간	M60	빠름	M94	중간
M27	중간	M61	중간	M95	느림
M28	중간	M62	중간	M96	느림
M29	느림	M63	빠름	M97	중간
M30	느림	M64	느림	M98	느림
M31	중간	M65	느림	M99	중간
M32	느림	M66	느림	M100	중간
M33	빠름	M67	느림		
M34	중간	M68	중간		

3.2 템포에 따른 정서반응 측정 결과

템포에 따른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템포와 정서반응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

		슬픈 -흥겨운	진지한 -재미있는	고요한 -힘있는	명상적인 -들떠있는
템포	Pearson상관계수	.637	.740	.509	.628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N	100	100	100	100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 위와 같이 템포는 유의수준 0.01 하에서 측정된 모든 정서영역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즉, 템포는 정서를 자극하는 데에 비중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빠른 템포인 음악일수록 흥겹고 재미있고 힘있고 들떠있는 기분을 유발하는 데에 반해, 느린 템포일수록 상대적으로 슬프고 진지하며 고요하고 명상적인 기분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빠른 템포의 음악은 자극적이고 느린 템포의 음악은 평온한 정서를 가져다준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어느정도 일치한다.

4. 관현악기에 따른 정서반응

4.1 측정 대상 음악의 악기

음색은 음고, 음가, 음량과 함께 음의 네가지 성질을 이루는 요소로 주로 음악에 사용된 악기에 영향을 받는다. 음색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고 복잡하므로 음색에 따른 정서반응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차후 과제로 삼도록 하고,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음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악곡에 사용된 악기를 관악기와 현악기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측정 대상 음악들은 가야금, 거문고, 해금, 피리, 대금 등 각각에 사용된 중심악기에 따라 현악기군과 관악기군으로 구분하였고 현악기와 관악기가 비교적 동등한 역할을 하는 중주곡이나 관현합주곡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9. 측정 대상 음악의 악기편성

음악	악기	음악	악기	음악	악기
M1	가야금	M35	관악합주	M69	해금
M2	대금	M36	혼합	M70	관악합주
M3	피리	M37	피리	M71	혼합
M4	해금	M38	해금	M72	혼합
M5	피리	M39	대금	M73	혼합
M6	혼합	M40	혼합	M74	대금
M7	혼합	M41	혼합	M75	거문고
M8	피리	M42	아쟁	M76	혼합
M9	혼합	M43	혼합	M77	현악중주
M10	피리	M44	대금	M78	관악합주
M11	태평소	M45	가야금	M79	해금
M12	가야금	M46	가야금	M80	관악합주
M13	가야금	M47	거문고	M81	가야금
M14	해금	M48	혼합	M82	대금
M15	혼합	M49	아쟁	M83	해금
M16	가야금	M50	대금	M84	해금
M17	혼합	M51	거문고	M85	혼합
M18	통소	M52	혼합	M86	거문고
M19	피리	M53	관악합주	M87	관악합주
M20	혼합	M54	해금	M88	혼합
M21	해금	M55	해금	M89	가야금
M22	해금	M56	혼합	M90	혼합
M23	가야금	M57	대금	M91	대금
M24	관악합주	M58	혼합	M92	해금
M25	해금	M59	해금	M93	혼합
M26	가야금	M60	혼합	M94	해금
M27	혼합	M61	아쟁	M95	혼합
M28	거문고	M62	혼합	M96	혼합
M29	해금	M63	가야금	M97	혼합
M30	가야금	M64	가야금	M98	해금
M31	혼합	M65	피리	M99	혼합
M32	가야금	M66	혼합	M100	혼합
M33	거문고	M67	해금		
M34	혼합	M68	대금		

4.2 현악기와 관악기에 따른 정서반응 측정 결과

현악기와 관악기를 집단변수로, 네가지 정서영역을 검정변수로 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10. 현악기/관악기와 정서반응의 독립표본 T검정

	악기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슬픈 -흥겨운	현악기	42	-.00395	1.071890	1.648	.104
	관악기	28	-.43046	1.043303		
진지한 -재미있는	현악기	42	-.32207	1.144900	2.921	.005
	관악기	28	-1.00296	.804829		
고요한 -힘있는	현악기	42	.07243	.878653	-.694	.490
	관악기	28	.23821	1.115049		
명상적인 -들떠있는	현악기	42	-.05955	.947686	.351	.727
	관악기	28	-.14293	1.013776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진지한-재미있는’ 정서의 유의확률이 0.005이고 현악기의 평균값이 관악기의 평균값보다 크다. 따라서 유의수준 0.01하에서 현악기 중심의 음악이 상대적으로 재미있는 정서를 유발하고, 관악기 중심의 음악이 진지한 정서를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서양음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음색과 정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 그러나 한국전통음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악기 음색이 정서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난다. 서양음악과는 달리 전통음악의 현악기군은 가야금, 거문고와 같은 발현악기가 중심이 되고 독특한 음색을 지닌 해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관악기의 음색 및 표현과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다는 점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 5. 수직텍스처의 두께에 따른 정서반응

#### 5.1 측정 대상 음악의 수직텍스처

텍스처는 음악적 특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음악의 텍스처는 보통 각 성부가 짜여진 방법을 나타내는 수직적 측면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리듬과 강약의 형태를 설명하는 수평적 측면을 모두 일컫는다. 이중 수직적 텍스처는 호모포니, 폴리포니, 헤테로포니 등 다성음악의 조직 방식을 말하기도 하고 성부의 수와 유니즌 중복 등에 의해 규정되는 음의 두터운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9].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측정대상이 되는 음악의 수직텍스처를 얇음, 중간, 두터움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편성이 큰 악곡일수록 두터운 텍스처를 갖고, 편성이 작더라도 화성악기를 많이 쓴다면 텍스처는 상대적으로 두터워진다.

표 11. 측정 대상 음악의 수직텍스처

음악	VT	음악	VT	음악	VT
M1	얇음	M35	두터움	M69	얇음
M2	얇음	M36	얇음	M70	두터움
M3	얇음	M37	중간	M71	중간
M4	얇음	M38	중간	M72	두터움
M5	얇음	M39	얇음	M73	중간
M6	중간	M40	두터움	M74	중간

M7	중간	M41	얇음	M75	얇음
M8	중간	M42	얇음	M76	중간
M9	얇음	M43	중간	M77	중간
M10	얇음	M44	얇음	M78	두터움
M11	중간	M45	중간	M79	중간
M12	얇음	M46	얇음	M80	두터움
M13	얇음	M47	얇음	M81	중간
M14	얇음	M48	두터움	M82	얇음
M15	두터움	M49	얇음	M83	얇음
M16	얇음	M50	얇음	M84	얇음
M17	중간	M51	얇음	M85	두터움
M18	얇음	M52	두터움	M86	얇음
M19	얇음	M53	두터움	M87	중간
M20	얇음	M54	중간	M88	중간
M21	얇음	M55	두터움	M89	얇음
M22	얇음	M56	중간	M90	두터움
M23	얇음	M57	얇음	M91	얇음
M24	두터움	M58	두터움	M92	얇음
M25	얇음	M59	두터움	M93	두터움
M26	얇음	M60	중간	M94	두터움
M27	두터움	M61	얇음	M95	얇음
M28	얇음	M62	중간	M96	두터움
M29	중간	M63	얇음	M97	두터움
M30	중간	M64	중간	M98	중간
M31	두터움	M65	두터움	M99	두터움
M32	얇음	M66	중간	M100	중간
M33	얇음	M67	두터움		
M34	두터움	M68	중간		

5.2 수직텍스처의 두께에 따른 정서반응 측정 결과 수직텍스처의 두께에 따른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수직텍스처의 두께와 정서 반응의 상관관계

		슬픈- -흥겨운	진지한- -재미있는	고요한- -힘있는	명상적인- -들떠있는
수직 텍스처	Pearson 상관계수	.280	.137	.324	.287
	유의확률 (양쪽)	.005	.176	.001	.004
	N	100	100	100	100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 수직텍스처는 위와 같이 유의수준 0.01 하에서 ‘슬픈-흥겨운’, ‘고요한-힘있는’, ‘명상적인-들떠있는’ 정서와 상관관계를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직텍스처가 두터울수록 흥겹고 힘이 있으며 들떠있는 기분을 유발하는 데 비해, 수직텍스처가 얇은 음악일수록 슬프고 고요하며 명상적인 정서와 관련이 깊다.



6. 수평텍스처의 밀집도에 따른 정서반응

6.1 측정 대상 음악의 수평텍스처

수평텍스처 역시 리듬의 형태나 아티클레이션, 다이내믹의 변화 등 여러 측면에서 언급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시간에 따라 출현하는 음의 밀집도를 고려하기로 한다. 특히 음의 수평적 밀집도는 시조와 가곡, 서도소리 등에 나타나는 엮음(編) 형식을 형성하는 요소로 전통음악에서 음악적 효과를 위해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요소이다. 측정대상음악은 출현음의 수평적 밀집도에 따라 성김, 중간, 춤춤함의 3단계로 구분되었다.

표 13. 측정 대상 음악의 수평텍스처

음악	HT	음악	HT	음악	HT
M1	성김	M35	성김	M69	성김
M2	성김	M36	성김	M70	성김
M3	성김	M37	성김	M71	춤춤함
M4	춤춤함	M38	중간	M72	성김
M5	중간	M39	중간	M73	중간
M6	성김	M40	성김	M74	성김
M7	성김	M41	성김	M75	성김
M8	중간	M42	춤춤함	M76	성김
M9	성김	M43	중간	M77	춤춤함
M10	중간	M44	성김	M78	성김
M11	성김	M45	중간	M79	성김
M12	중간	M46	성김	M80	성김
M13	춤춤함	M47	춤춤함	M81	춤춤함
M14	중간	M48	중간	M82	중간
M15	중간	M49	성김	M83	중간
M16	성김	M50	성김	M84	중간
M17	성김	M51	성김	M85	성김
M18	중간	M52	성김	M86	중간
M19	성김	M53	성김	M87	성김
M20	춤춤함	M54	중간	M88	성김
M21	중간	M55	춤춤함	M89	성김
M22	중간	M56	중간	M90	성김
M23	춤춤함	M57	춤춤함	M91	성김
M24	성김	M58	춤춤함	M92	성김
M25	성김	M59	춤춤함	M93	춤춤함
M26	중간	M60	중간	M94	중간
M27	중간	M61	중간	M95	중간
M28	춤춤함	M62	춤춤함	M96	성김
M29	성김	M63	춤춤함	M97	중간
M30	성김	M64	중간	M98	중간
M31	중간	M65	중간	M99	중간
M32	성김	M66	성김	M100	중간
M33	춤춤함	M67	중간		
M34	춤춤함	M68	중간		

6.2 수평텍스처의 밀집도에 따른 정서반응 측정 결과 수평텍스처의 두께에 따른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수평텍스처의 밀집도와 정서 반응의 상관관계

		슬픈 -흥겨운	진지한 -재미있는	고요한 -힘있는	명상적인 -들떠있는
수평 텍스 처	Pearson상관계 수	.497	.577	.344	.489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N	100	100	100	100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수평텍스처는 유의수준 0.01 하에서 측정된 모든 정서영역과 관련을 갖는다. 템포의 측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평텍스처는 춤춤함수록 흥겹고 재미있고 힘이 있으며 들떠있는 기분을 유발하는 데에 반해 성김 수평텍스처를 가진 음악일수록 상대적으로 슬프고 진지하며 고요하고 명상적인 기분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7. 장르에 따른 정서반응

7.1 측정 대상 음악의 장르

측정대상은 정악, 민속악, 창작국악, 퓨전국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악과 민속악은 서양문화의 영향이 거의 없었던 근대이전부터 전래된 전통음악을 구분하는 갈래로, 정악은 상류층에서 향유하던 아정한 음악을 말하며 민속악은 주로 서민계층에 근원을 두고 있는 표출력 강한 음악을 뜻한다.

창작국악과 퓨전국악은 모두 20세기 이후 작곡가에 의해 새로 창작된 전통음악을 말하는데, 비교적 명확한 개념인 정악과 민속악에 비해 창작국악과 퓨전국악의 경계는 다소 모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서양악기가 중심이 된 경우 퓨전국악으로, 서양악기가 사용되었다고 부차적인 기능을 하거나 선법과 장단 면에서 전통국악의 어법을 충실하게 따른 작품인 경우 창작국악으로 분류하였다.

표 15. 측정 대상 음악의 장르

음악	장르	음악	장르	음악	장르
M1	민속악	M35	정악	M69	민속악
M2	정악	M36	정악	M70	정악
M3	퓨전국악	M37	퓨전국악	M71	창작국악
M4	민속악	M38	퓨전국악	M72	정악
M5	민속악	M39	민속악	M73	창작국악
M6	정악	M40	정악	M74	퓨전국악
M7	정악	M41	정악	M75	창작국악
M8	퓨전국악	M42	민속악	M76	정악
M9	퓨전국악	M43	정악	M77	창작국악
M10	민속악	M44	민속악	M78	정악
M11	정악	M45	퓨전국악	M79	퓨전국악
M12	창작국악	M46	퓨전국악	M80	정악
M13	민속악	M47	민속악	M81	창작국악
M14	민속악	M48	민속악	M82	퓨전국악
M15	정악	M49	민속악	M83	창작국악
M16	창작국악	M50	창작국악	M84	민속악
M17	정악	M51	민속악	M85	정악
M18	민속악	M52	퓨전국악	M86	창작국악
M19	민속악	M53	정악	M87	정악
M20	퓨전국악	M54	퓨전국악	M88	정악
M21	퓨전국악	M55	창작국악	M89	퓨전국악
M22	퓨전국악	M56	정악	M90	퓨전국악
M23	민속악	M57	민속악	M91	창작국악
M24	정악	M58	민속악	M92	민속악
M25	민속악	M59	퓨전국악	M93	퓨전국악
M26	퓨전국악	M60	정악	M94	퓨전국악
M27	정악	M61	민속악	M95	창작국악
M28	창작국악	M62	퓨전국악	M96	정악
M29	퓨전국악	M63	창작국악	M97	정악
M30	창작국악	M64	퓨전국악	M98	창작국악
M31	정악	M65	퓨전국악	M99	퓨전국악
M32	창작국악	M66	정악	M100	퓨전국악
M33	민속악	M67	정악		
M34	창작국악	M68	퓨전국악		

7.2 정악과 민속악에 따른 정서 반응 측정 결과

정악과 민속악을 집단변수로, 네가지 정서를 검정변수로 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16. 정악/민속악과 정서반응의 독립표본 T검정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슬픈 -흥겨운	정악	29	.30352	.793828	1.359	.182
	민속악	24	-.09342	1.234782		
진지한 -재미있는	정악	29	-.49152	.779678	-1.334	.740
	민속악	24	-.39433	1.237419		
고요한 -힘있는	정악	29	.75393	.658335	1.256	.215
	민속악	24	.50154	.805018		
명상적인 -들떠있는	정악	29	.44500	.684793	1.314	.195
	민속악	24	.14542	.971502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확률은 모두  $p>0.05$ 이다. 따라서 정악과 민속악의 구분은 어떠한 정서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할 수 있다. 다만 네가지 정서 영역에서 모두 민속악이 정악보다 표준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정악이 감정을 절제하는 데 반해 민속악이 강한 감성적 표출력을 갖는다는 상식에 어느정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7.3 창작국악과 퓨전국악에 따른 정서반응 측정 결과

창작국악과 퓨전국악을 집단변수로, 네가지 정서영역을 검정변수로 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17. 창작/퓨전국악과 정서반응의 독립표본 T검정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슬픈 -흥겨운	창작국악	19	-.29911	1.029278	-.103	.848
	퓨전국악	28	-.23021	1.302827		
진지한 -재미있는	창작국악	19	-.60079	1.109416	-.217	.829
	퓨전국악	28	-.52236	1.282704		
고요한 -힘있는	창작국악	19	-.18679	1.032159	1.060	.295
	퓨전국악	28	-.48079	.860887		
명상적인 -들떠있는	창작국악	19	-.28421	1.046000	.601	.551
	퓨전국악	28	-.47236	1.057693		

창작국악과 퓨전국악을 비교했을 때도 모두  $p>0.05$ 이다. 따라서 창작국악과 퓨전국악의 차이는 음악이 유발하는 정서와 유의미한 관련을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준편차 역시 대동소이한데, 이러한 결과는 창작작품에서 서양음악적 요소의 도입의 많고 적음이 어떤 정서를 형성하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한다.

7.4 전통국악과 현대국악에 따른 정서반응 측정 결과

앞서 언급했듯이 정악과 민속악은 오래전부터 전래되어온 전통국악이고 창작국악과 퓨전국악은 현대에 와서 새로 창작된 음악이다. 이를 각각 그룹화하여 전통국악과 현대국악을 집단변수로, 네가지 정서영역을 검정변수로 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18. 전통/현대국악과 정서반응의 독립표본 T검정

	장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슬픈 -흥겨운	전통국악	47	-.25806	1.188275	-1.709	.091
	현대국악	53	.12377	1.026396		
진지한 -재미있는	전통국악	47	-.55406	1.203690	-4.77	.634
	현대국악	53	-.44751	1.003483		
고요한 -힘있는	전통국악	47	-.36194	.934427	-5.999	.000
	현대국악	53	.63964	.732187		
명상적인 -들떠있는	전통국악	47	-.39630	1.045696	-3.753	.000
	현대국악	53	.30934	.832243		

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전통국악과 현대국악의 차이는 유의수준 0.01하에서 ‘고요한-힘있는’ 정서 및 ‘명상적인-들떠있는’ 정서와 유의미한 관련을 갖는다. 즉 현대국악이 전통국악에 비해 더 힘이 있고 들떠있는 정서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 IV. 결론

창작국악 및 퓨전국악을 포함하는 전통음악 100개를 측정대상으로 하여 정서반응을 조사한 결과 전통 선법은 일정한 정서반응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장단조 선법과 템포, 수직 및 수평 텍스처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특정한 정서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색과 장르의 차이도 일정한 정서반응과 유의미한 관련을 갖는다. 장조와 단조의 영향은 서양음악에서의 통념과 연구결과에서 마찬가지로, 장조는 흥겹고 명랑한 정서와 단조는 슬픔의 정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템포는 빠를수록, 수평텍스처가 촘촘할수록 흥겹고 재미있고 힘이 있으며 들떠있는 정서를 형성하는 반면, 템포가 느릴수록 그리고 수평텍스처가 성길수록 상대적으로 슬프고 진지하며 고요하고 명상적인 기분을 유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수직텍스처가 두터울수록 흥겹고 힘이 있고 들떠있는 기분을 유발하며 수직텍스처가 얇은 음악일수록 슬프고 고요하며 차분한 정서와 연관성을 갖는다. 그리고 한국 전통음악의 현악기의 음색은 관악기에 비해 진지함보다는 재미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전통국악에

비해 현대에 창작된 국악작품이 힘있고 들떠있는 정서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본고는 응답조사분석을 토대로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지만 전통음악의 정서반응에 관하여 보다 풍부하고 체계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완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100개의 음악과 30여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응답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 번의 조사를 통한 결과로 전통음악의 음악적 요소와 정서와의 관계를 속단할 수는 없다. 향후 더 많은 음악과 표본을 통한 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분석을 했을 때 보다 신뢰성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법, 템포, 수직텍스처, 수평텍스처, 악기, 장르를 기준으로 각각의 음악적 요소와 정서반응과의 관계를 추론하였다. 이외에도 여기에서 고려되지 않았지만 리듬, 선율, 강약, 음역, 성부결합 등과 같이 음악을 특징짓는 데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음악적 요소와 정서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 정서반응은 이러한 음악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과의 관계 또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서’ 자체에 관한 포괄적인 이론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는 측정도구로서 Hevner가 제시한 정서영역을 전통음악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서양음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한국전통음악의 특성상 이와 관련없는 전통음악 고유의 정서영역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1] K. Hevner, "Experimental Studies of the elements of Expression in Music,"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48, pp.246-268, 1936.

- [2] K. Hevner, "The affective value of pitch and tempo in music,"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49, pp.621-630, 1937.
- [3] J. K. Van Stone, "The effects of instrumental tone quality upon mood response to music," *Music therapy*, 1959.
- [4] J. J. Wakshlag, R. J. Reitz, and D. Zillman, "Selective exposure to and acquisition of information from educational television programs as a function of appeal and tempo of background music,"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pp.666-667, 1982.
- [5] 이소정, "장조와 단조를 중심으로 한 음악적 정서 반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6] 박선미, "음악적 자극에 대한 정서 반응의 전통적인 요인",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제18호, pp.115-136, 2003.
- [7] R. E. Radocy and J. D. Boyl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97. 최병철, 방금주 譯. *음악심리학*, 학지사, 2001.
- [8] 황준연, *한국 전통음악의 악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9] S. Sadie and J. Tyrrell, *New Grove Dictionary*, Grove, 2001.
- [10]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음악의 지각과 인지 I*, 음악세계, 2005.
- [11] 광세열, 배양현, 신현정, "한국 전통음악의 리듬(정악과 민속악)과 타악기의 심리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Vol.8, No.2, 1996.
- [12] 광세열, 배양현, 신현정, "한국 전통음악 음고의 심리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Vol.11, No.1, 1999.
- [13] 中森 義光軍, *感性 データ 解析*, 森北出版株式會社, 2000. 오석근, 김판구 譯, *감성 데이터 해석*, 흥릉과학출판사, 2002.

저 자 소 개

장 인 중(In-Jong Jang)

정회원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국악과 (학사)
- 2003년 8월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학과(예술전문사)
- 2007년 7월 ~ 현재 : 전주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 전통음악 콘텐츠, 음악심리학